

2025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사업설명회 Q&A

- 2025. 2. 19. , KIAT 국제협력사업실 -

□ 공통사항

○ 평가 중에 발표평가도 있는지? 대면평가인지? 화상평가인지?

☞ 선정평가는 보통 발표평가로 진행되며, 상세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접수 과제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임

○ 수요기업이 정확히 어떤 기업을 의미하는지?

☞ '수요기업'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,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에 해당함

○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한지?

☞ 그러함,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'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'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됨

○ 하나의 기업이 한 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☞ 가능함, 다만 지원한 과제가 모두 선정되면 3책 5공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국내기관은 규정 준수 여부를 필히 검토하고 협약을 진행해야 함

○ 3책 5공이란?

☞ 현행 규정상,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하며, 참여연구자는 5개 이내로 제한됨

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(사업의 신청)2항

○ 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때, 대학에서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해도 되는지?

☞ 국내기관은 기관별로 배정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규정상의

정해진 비율을 준수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함

○ 컨소시엄 내 기업-연구소-대학 간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?

- ☞ 정해진 비율은 없으나, 동 사업에 지원하는 국내 컨소시엄에는 반드시 영리기업이 최소 1개 이상 참여해야 함
- ☞ 다만, 독일 "2+2" 과제의 경우, 기업+대학/연구기관 형태로 국내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야 함

○ 자동차 관련 분야도 지원 가능한지?

- ☞ 각 국가별로, 프로그램별로 지원분야가 상이하야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
- * 양자 : 10p, 다자 : 16p

○ 국제공동 과제를 수행했다면, 지원시 불이익이 있는지?

- ☞ 없음

○ 대기업의 경우 평가시 불이익이 있는지?

- ☞ 없음

○ 상대 국가의 평가 기준도 같은지?

- ☞ 공동펀딩형 사업의 경우, 각국의 전문기관이 자국의 기관을 평가·관리하여 국별 규정, 공고, 기준 등이 상이함

○ 평균적으로 접수되는 지원서 개수 및 채택되는 제안서 개수?

- ☞ 연평균 접수 과제 및 선정 과제 수는 매년 상이함

○ 과제의 종료시점이 해외 파트너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지?

- ☞ 개발 초기 또는 접수시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컨소시엄의 과제 수행기간이 동일함. 다만,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행기관이 국내외 기간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간사와의 협의가 필요함

○ IP 소유권을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? 기술료 납입의 경우, 의무 사항인지?

- ☞ 기술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물의 귀속은 국내 규정상 수행기관에게

있으며, 국내외 기관간의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보통 국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함

☞ 기술료의 경우, 정부지원을 받은 영리기업이면 모두 의무사항임

○ 인건비 등 과제 운영 비용의 비율이 정해져있는지?

☞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및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」 규정에 따라 의무 산정 또는 계상 한도가 정해진 비목(연구수당, 간접비 등)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

○ 보통 상대측 국가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의된 상태에서 과제를 진행하는지?

☞ 공동펀딩형 사업의 경우, 국내외 기관이 공동으로 영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국내외 컨소시엄간의 역할분담 및 연구내용에 대한 협의가 접수전에 완료됨

○ 해외 연구개발기관과 매칭은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?

☞ 양·다자펀딩형 사업의 경우 “자유공모” 과제로, 국내외 컨소시엄의 구성, 과제 기획 및 제안을 기관 자율적으로 진행됨

☞ KIAT에서는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 지원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파트너링 매칭을 지원하고 있음.

* 온라인 : <https://south-korea-partnering-system.b2match.io/>

* 오프라인 : 파트너링 매칭 행사(코리아 유레카 데이 등)

○ 매치메이킹 사이트 URL 주소?

☞ <https://south-korea-partnering-system.b2match.io/>

○ 상대국 수행기관 사업비는 상대국에서 펀딩을 제공하는지?
펀딩규모는 국내와 상이한지?

☞ 공동펀딩형 사업의 경우, 국가별 전문기관이 자국의 기관을 평가·관리하고 펀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별 펀딩 규모 및 조건이 상이함

○ 다른 나라의 경우, 한국처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이 정해져있는지?

☞ 국가별 규정이 달라 해당국 전문기관에 확인이 필요함

○ KIAT 공고처럼 국가별로 안내 사이트나 시스템이 있는지?

☞ 국가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어, 각각의 대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임

□ 양자 공동펀딩형 R&D - 미국

○ 미국 양자 과제의 특이점에 대한 세부설명?

☞ 미국 양자 공고는,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확정된 기관 또는 미국 소재의 연방R&D 기관과 국내기관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국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

○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공공연구소인데 국공립 연구기관은 안되는지?

☞ 해당 기관이 공고문상에 명시된 공공연구소(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)에 포함되는 경우 가능함

○ 상대국(미국)에서 과제 접수를 해야 하는지?

☞ 미국 양자 공고는 별도 미국기관의 자국 정부기관 접수 없이 한국 기관이 국내접수만 진행

○ 미국 양자 사업의 경우, 국내 평가만 통과하면 되는지?

☞ 그러함, 국내 KIAT 선정평가에서 한-미 양자 사업을 통한 국내기관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공고 이후 미국측 평가는 따로 진행하지 않음

○ 미국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만으로 과제 접수가 가능한지?

☞ 불가함, 국내 연구개발기관 중 주관기관의 자격은 "공공연구소"로 한정되어 있고, 기업은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(기업 필수)

○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확정된 기관이거나, 연방R&D 기관과 공동R&D를 수행하는 미국 과제도 한국과 동일하게 3년의

연구기간이 확보되어있어야 하는지?

☞ 미국측 정부펀딩(과제)는 한국의 과제수행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함.
미국의 연구기간 미국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내용을 국문
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으며, 동 사항은 선정평가시
사전검토를 통해 과제 추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지표가 될 예정임

○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확정된 기관이거나, 연방R&D
기관과 공동R&D를 수행하는 미국측 기관은 펀딩금액, 펀딩기간
등 제한이 없는지?

☞ 별도 제한은 없으나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내 동 내용에 대해 작성할 수
있는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 선정평가 과정에서 동 내용은 과제
추진 가능 정도를 평가할 지표로 확인될 예정임

○ 미국 수행기관이 미국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은 것과 같은
내용으로 국내 기업이 평가받는지?

☞ 국내 평가만 진행하기에 완전히 동일한 내용은 아니나, 국내에서 과제
신청 시 사업계획서 내 한국측 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미국측
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모두 기술토록 하고 있음

○ 미국 수행기관이 받은 펀딩의 상세 종류에 제한이 있는지?

☞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기관이 받는 펀딩 종류에 대한 제한사항이 별도로
정해진 바는 없으나, 관련 내용을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포함하여
작성이 필요함

□ 양자 공동펀딩형 R&D

○ 스페인 과제의 경우, 바이오 관련 산업은 지원이 불가능한지?

☞ 스페인 양자 공고의 경우, 올해 지원 분야를 스페인 전문기관과
협의중으로 하반기에 안내 예정

☞ 다만, 스페인의 경우 다자 프로그램(유레카, 유로스타, 호라이즌, 메라넷)에
해당하며, 메라넷을 제외하고 전 산업분야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자

프로그램으로 한-스페인 구성의 과제지원이 가능함

* 메라넷 : 소재부품 분야 특화 프로그램

○ 양자 사업의 경우 (독일, 스위스 등) 브로커리지 이벤트가 있는지?

☞ 나라별 이벤트 추진 예정이며, 상세 일정은 별도 안내될 예정임

○ 양자 사업의 경우 나라마다 국내 사업계획서 양식이 다른지?

☞ 미국을 제외하고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모두 동일

○ 영국 양자 공고 일정?

☞ 연내 별도 공고 추진 예정임

○ 다자 공동펀딩형 R&D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프랑스 양자 공고 접수방법? 세부 지원분야?

☞ 프랑스의 경우 양자 공고를 추진하나 다자 프로그램 중 "네트워크"를 기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, "네트워크" 과제 접수 플랫폼에 과제를 우선 접수해야 함. 국별 세부 지원 분야는 추후 별도 공고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임

○ 싱가포르, 프랑스 양자 공고 일정?

☞ 싱가포르 4월 이후, 프랑스 6월 이후 안내 예정

□ 다자 공동펀딩형 R&D

○ 다자 공동R&D 프로그램 참여국에 없는 나라와는 진행이 불가능한지?

☞ 다자공동펀딩형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각 프로그램별 참여국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참여국가가 아닌 국가와의 협력은 진행되기 어려움

○ 다자 펀딩 프로그램은 반드시 3국 이상이 참가해야 하는지?

☞ 다자공동펀딩형 프로그램의 기본 컨소시엄 구성 조건은 "서로 다른 2개국 이상, 2개 기관 이상"으로 2개 국가 간의 양자성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함

☞ 다만, 각 프로그램별로 지원자격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

○ 핀란드와 다자 공동R&D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지?

☞ 가능함, 다자 협력국으로서 모든 다자 공동R&D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함

○ 기존에 수행 중이던 유레카 과제종료 이후, 신규 유레카 과제 지원 시 문제가 있는지?

☞ 없음

○ 5억/년 지원규모는 국내컨소시엄 사업비 규모인지, 아니면 해외컨소시엄 사업비까지 포함한 지원규모인지?

☞ "5억원 이내/년"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적용되는 지원규모에 해당함

○ 유레카 네트워크의 경우 주관기관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?

☞ 없음, 다만,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최소 1개사 참여가 필수임

○ 유레카 XECS 클러스터 PO 일정이 지났는데 접수가 불가능한지?

☞ 유레카 클러스터는 각 사무국별로 공고가 추진되며, 접수 기한이 지난 경우 추가접수가 불가능함

○ 유레카, 유로스타3, 메라넷3 사업별 분야가 한정되는지?

☞ 유레카 클러스터의 경우 5개의 기술분야(소프트웨어, 통신기술, 친환경에너지, 전기전자, 스마트제조)별로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술과 관련된 과제만 접수가 가능함

☞ 메라넷의 경우, 소재부품 분야 특화 프로그램으로 2025년 상세 지원분야는 공고문 16p에서 확인 가능함

☞ 그 외, 다자펀딩형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영문 공고문 등을 참고하길 바람

○ 유레카 네트워크, 유레카 클러스터, 유로스타3 모두 한국 포함 2개국이 참여하면 되는지?

☞ 다자공동R&D 프로그램의 기본 컨소시엄 구성 조건은 "참여국 2개 이상 국가,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"으로 한국 포함 2개국 양자성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함

☞ 다만, 각 프로그램 별 세부 기타 지원조건은 공고문 및 프로그램 별 가이드라인 등 확인 필수

○ 유레카 네트워크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고 및 지원기준은 해당 국가의 전문기관에 확인해야 하는지?

☞ 각국의 전문기관이 자국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·관리하며 국가 별 규정, 공고,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, 해당 국가의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

☞ 유레카 홈페이지(<https://eurekanetwork.org>) "Eureka in your country" 및 "Contact your national funding body" 통해서 상대국 공고 및 지원기준 확인 가능함

○ 유레카 클러스터, 유로스타, 메라넷 중앙사무국 접수일정?

☞ 다자공동R&D 프로그램 별 중앙사무국 접수일정은 모두 상이하기에, 각 프로그램 별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일정 확인 필요함

○ 유레카 네트워크 및 유로스타3 프로그램 국내 접수일정의 경우 연 2회 접수에서 연 1회 접수로 변경된 것인지?

☞ 예산 상황에 따라 국내 접수일정의 경우 매년 변동될 수 있음

○ 호라이즌유럽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?

☞ 맞음, 한국의 2025년 호라이즌유럽 Pillar 2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호라이즌 유럽은 올해 지원하지 않음

□ 다자 공동펀딩형 R&D - 유로스타

○ 유로스타의 경우, 올해는 연 1회 지원이 맞는 건지?

☞ 맞음, 유로스타 중앙 사무국 접수는 상, 하반기 연 2회로 진행되나 현재 중앙 사무국 상반기 접수 중인 유로스타 8차공고는 한국 미참여임. 이에 하반기에 진행될 9차공고와 관련하여 추후 공고가 게재될 예정.

○ 재무건전성 검토 시의 기준은?

☞ 『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』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동 요령 [별표 2]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에 따라 검토

○ 유로스타3 8차공고 접수 및 영국의 참여 여부

☞ 현재 중앙 사무국 접수 중인 유로스타3 8차공고는 한국 미참여이며 한국 컨소시움에 대한 지원 불가, 영국은 유로스타3 회원국으로 동 프로그램에 참여

○ 유로스타3 영문제안서 제출 시,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(현금과 현물 포함)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지?

☞ 유로스타를 포함한 모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영문 제안서 내용 중 한국기관의 총 연구개발비(Total Cost)는 정부지원금에 기관부담금(현금+현물) 금액으로 작성해야 함

○ 민간 목적의 사업만 지원가능의 의미?

☞ 군사적 목적의 가진 과제는 지원 불가함

○ 영문 제안서 작성 시, Acronym 작성 관련

☞ Acronym은 긴 문장 형태가 아닌 단어로 선정하는 것을 추천

○ 유로스타 영문 제안서 작성 시, 투자계획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?

☞ 과제 종료 후 발생한 유·무형적 성과물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 필요한 모든 활동에 대한 투자계획을 작성해야 함

○ 유로스타 영문 제안서 작성 시, 내용이 반복되어도 무방한지?

☞ 연구개발계획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수 있으나, 너무 같은 내용을 계속 붙여 넣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며, 제안서의 각 항목에 따라 적절하게 내용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

○ 유로스타 영문 제안서 작성 시, 컨소시엄 구성원의 재무적 상황과 지속가능성, 견고함 등이 돋보이도록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도 필요할지?

☞ 재무적 내용이 점수화 되어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나, 과제 전반적으로 각 기관별 재무적 상황, 투자 계획등이 포함되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제안서로 검토될 수 있음

☞ 과제의 펀딩 필요 사유에 대한 어필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

○ 유로스타 영문제안서 작성 시, 예산부분 작성 요령?

☞ 영문제안서 양식을 보면 각각의 Work Package(WP) 마다 예산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,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장비가 필요한 경우, 출장비(Travel) 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다르니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. 아무런 설명 없이 큰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면 이는 평가에서 좋지 못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이 좋음

○ 유로스타 영문제안서 작성 시, Work Package(Work Package) 개수가 많은 것이 불리한지?

☞ WP가 10개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는 각 WP간의 연계정도와 주어진 연구 개발 기간(3년 이내)에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이 생김. WP 개수를 줄이고 세부 Task를 구체화하는 것을 추천함

○ 유로스타 지원 시, 한국 및 유럽기업 모두 EU법 상의 SME에 해당하여야 하는지, 과제의 리드 기관은 반드시 유럽소재의 기업이어야 하는지?

☞ 유로스타는 중소기업의 국제 연구 협력을 중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, 컨소시엄을 이끄는 메인 리드기관은 EU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해야

합니다. 반드시 유럽 소재의 기업만 가능한 것이 아닌 유로스타 참여국 소재의 기업 중 EU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가능함

○ 리드기관과 주관기관의 차이?

☞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국내외 전체 컨소시엄을 이끄는 기관을 "리드기관", 국내 연구개발기관을 이끄는 기관을 "주관기관"으로 구분하여 설명함

☞ 유로스타의 경우, "리드기관"은 유로스타 참여국 소재 기업 중 EU 법상 SME에 해당하는 기업이 담당해야 하고 국내 "주관기관"은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이 담당해야 함

○ 다자공동펀딩형 사업의 경우, 국가별 참여 및 펀딩 조건은 각국의 공고를 따름이라는 말의 의미? "과제당 5억이내/년"의 지원규모는 국내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인지?

☞ 해당 지원조건은 한국기관에만 해당함. 다자공동펀딩형 사업의 경우 각 국가별 참여 조건 및 지원조건이 상이함

□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

○ 인력교류의 경우, 국내기업 연구자가 해외현지파견이 필수이면, 주관기관의 연구자만 가능한 것인지? 아니면 참여기관도 가능한지?

☞ 국내기업 연구자 해외파견이 필수사항이고, 그 외 참여기관의 해외파견은 선택사항이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수행기관의 해외파견은 가능함

○ 공동 R&D 과제의 경우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(협력센터 참여필수)라 되어있는데 공고문에 협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?

☞ 협력센터로 지정된 해외기관의 참여는 필수임

○ 협력센터와 개발기획을 하는 것이라면, 협력센터가 있는 대학 예를 들어 예일대 소속 교수님과 과제개발 기획을 해서 제안해도 되는 것인지?

☞ 제안 가능함

- 공동R&D 주관기관의 연구자가 필수로 현지파견을 가야된다고 하셨는데, 주관기관+참여기관 연구자의 현지파견 일수합이 50% 넘으면 되는지?

☞ 공고문에는 주관기관이 아닌 “국내기업”의 연구자가 현지 파견을 가는 것이 필수임. 그러므로 주관이든 참여기관이든 “국내기업” 연구자의 현지파견 일수의 총합이 사업기간의 50%를 넘으면 됨.

- 협력센터 과제에 지원금은 해외기관에 모두 지원 되는것인가요? 협력센터도 국내 공동 참여기관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봤는데 이럴 경우 어느 정도 비율로 국비가 지원되는지 궁금함.

☞ 본 사업은 협력센터(과제 발굴 및 기획)와 공동연구(연구개발과제 수행),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. 협력센터는 해외기관만 지원 가능. 공동연구는 국내기업이 주관이고, 협력센터 해외기관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컨소시엄을 대표해서 주관인 국내기업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임.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비율은 비영리면 100%, 기업이면 규모에 따라 50~75%임.

- 협력센터 총 예산 92억원/년에 맞춰서 협력센터 센터별 6억 (2개 센터 지원)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20억원/년을 지원받는 공동 R&D 컨소시엄이 여러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을지?

☞ 정확하게 계산하셨음. 다만, 올해는 6개월치만 지급되므로(7월에 과제 시작) 과제당 10억씩 지원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됨.

- 협력센터 공동 R&D 과제에서 센터 참여가 필수라면, 센터가 소속된 대학의 교수가 센터 소속으로 참여해야 하는건가요? 아니면 설명주시기로는 협력센터, 해외대학이 별개의 기관으로 참여해야하는건가요?

☞ 협력센터는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과제라고 보면 됨. 협력센터와 공동R&D는 별개의 과제처럼 돌아감. 협력센터를 운영하는 교수만 공동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님.